

“성과급 투명화 안 되면 파업”... 삼성전자 4만 세 과시

총파업 결의대회 직원 30% 이상 참여
“SK하이닉스에 비해 성과급 10배 적어”
갈등 첨예한 초과이익상환제 철폐 요구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OPI 상환폐지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21일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원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세력을 과시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초과이익상환제(OPI) 상환 폐지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21일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첫 과반 노조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이 23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리허설을 진행했고 2시부터 본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노조 추산 3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 추산 인원은 약 3만 명이었던 이후 초기업 노동조합이 경찰 추산 인원이 4만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직원은 12만8881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30%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집회 현장에는 ‘여기다 풀고 가세요’라는 문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DS 부회장, 노태문 DX 부문장의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으며 실제로 얼굴 부분이 훼손돼 있었다. 삼성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 최초의 과반 노조 탄생과 4만 명의 집회 참석 인원을 강조했다. 홍광흥 삼성 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삼성에서 노조하기 힘들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조롱을 당당히 꺾어내고 우리가 삼성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삼성이

라는 빛나는 현판 아래 서 있는 것이 부끄러웠던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고 왜 과반 수 노조가 됐으며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번 집회에서 성과급 제도 투명화를 삼성 그룹 계열사 전체에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위원장은 “소수의 의사 결정권자 외에는 알 수 없었던 성과급 제도에 대한 삼성 그룹 30만 명 모두의 염원을 조합원 전원이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성 초기업 노조는 ‘투명하게 바꾸고

상환 폐지 쟁취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초기업 노조는 성과급 기준 투명화와 OPI 상환 폐지를 핵심 요구 내세워 왔다. 이번 집회에서도 노조는 OPI 상환 폐지를 강조했다. 노조가 집회 도중 공개한 영상 ‘우리가 싸우는 이유’에서도 OPI 상환에 따라 삼

성전자 1인당 성과급이 약 4000만 원으로 SK하이닉스 성과급과 약 10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향후 지침으로 체크오프 제도 도입과 총파업 진행을 강조했다. 체크오프 제도는 노사 합의 하에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제도다.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임금을 감추지 않으려 회사에 조합원들의 의지를 밝히고 총파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로 우리의 의지를 사측에 보여주자”며 “모두가 조합원임을 밝히고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 선언”이라고 말했다. 지침 2호는 향후 총파업 계획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숨 가쁜 불장PELLI... 코스피 사흘째 신기록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6475.81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0.9% 오른 수치로, 3일 연속 증가 기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3일 9시 35분경 6550을 넘는 이후 6300선까지 밀려났다. 이후 다시 반등하며 64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날 기관은 은행과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1조 192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690억 원 순매도로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조3350억 원 순매수했다. 이날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치를 웃돌며 희소식을 띤 날이었다. 한국의 1분기 GDP는 수출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1.7% 성장해 기준 전망치 0.9~1.0%를 상회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의 호조로 전기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1분기 매출 52조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6103억 원을 기록했으며 장중 5%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장중 23



코스피가 6470대로 올라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일보다 0.9% 올라 6475.81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도... 개미는 매수

만 원을 넘어서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간밤 미국 증시도 상승했다. 중동 정세 악화 우려가 다소 완화된 데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영향이다. IT 등 미국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 등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2% 상승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9%, 나스닥 종합지수는 1.64%, S&P500지수는 1.05% 올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 1481.0 원을 기록하며 전 영업일보다 5원 올랐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은 전일 증가 1181.12 대비 0.58% 하락한 1174.31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324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10억 원 순매도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인쇄용지 담합 한솔제지 등 6개사 과징금 3383억

공정위, 약 4년간 7차례 적발
공중전화·가명으로 은폐도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6개 제지사가 약 4년간 가격 담합을 반복한 끝에 3383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흥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25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흥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지 6사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회합을 진행하며 총 7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합의는 한 차례 실패 없어 실행했다. 실제 인상은 2021년 3월과 6월 할인을 축소로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2월 기준 가격 7% 인상, 2022년 5월 기준가격 15%

시장점유율	인쇄용지 가격 인상 합의 내용				과징금 부과 내역	
	차수	시기	방법	인상 폭	업체명	과징금액
한솔제지 40.0%	1차	2021년 3월~	할인율 축소	15%p	무림에스피	347
한국제지 18.0%	2차	2021년 6월~	할인율 축소	7%p	무림페이퍼	4만5846
무림피앤피 15.7%	3차	2021년 12월~	기준가격 인상	7%	무림피앤피	9만1957
무림페이퍼 14.6%	4차	2022년 5월~	기준가격 인상	15%	한국제지	4만9057
무림에스피 4.5%	5차	2022년 9월~	할인율 축소	7%p	한솔제지	14만2580
흥원제지 4.5%	6차	2023년 12월~	할인율 축소	8%p	흥원제지	8538
상화제지 2.4%	7차	2024년 8월~	할인율 축소	7%p	합계	33만832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백만원

인상, 2022년 9월 할인율 축소, 2023년 12월 할인율 8%p 축소, 2024년 8월 할인율 7%p 축소 등 7차례 담합행위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의 담합 기간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 매출 기준 이들 6개사의 국내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95%이며, 수입 물량을 반영하더라도 점유율은 약 81% 수준이다. 담합 은폐 방식도 치밀하게 진행됐다. 담합 주도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와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했으며, 경쟁사 연락처는 휴대전화 저장 대신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별도 종이

에 적어 관리했다. 또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할 업체 순서까지 사전에 맞췄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통보 순서를 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과징금 규모는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이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5번째로 큰 규모이며, 제지업계 담합 사건 중에서는 최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1425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무림페이퍼 919억5700만 원, 한국제지 490억5700만 원, 무림에스피 458억4600만 원, 흥원제지 85억3800만 원, 무림에스피 3억4700만 원 순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삼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자력을 세계에 알린 전진사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필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를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성천의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성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쇄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찾았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